

경계 없는 혁신가... 글로벌 창업·경영 패러다임 제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과감한 혁신과 현장중심경영으로 기존 사업의 내실화에 만전을 기해 달라.”(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범(汎)롯데가를 창업한 고(故)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은 서울 잠실에 세계적인 초고층 빌딩인 롯데월드타워를 탄생시킨 주인공이다.

현장의 중요함과 경영의 혁신을 강조했던 신격호 명예회장은 껌장사로 시작해 롯데그룹을 삼성, 현대자동차, SK, LG에 이어 재계 5위 안에 드는 대기업으로 성장시킨 인물이다.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신 명예회장의 경영 철학을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이유다.

신격호 명예회장은 현재 대한민국의 유통산업 발전에 큰 이바지를 했다. 유통뿐 아니라 관광산업까지 성장시키며 사실상 대한민국 ‘문화’ 분야를 새롭게 개척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맨손으로 롯데 창업... 성공신화 국가·업종 등 한계 넘어 신시장 개척 세계 최고층 롯데월드타워 건립

◆껌장사로 시작해 국내 최대 식품회사로 자리잡기까지

신격호 명예회장은 1944년 일본 와세다 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한 뒤 일본에서 껌 장사를 시작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껌 사업이 성공을 거두면서 본격적인 롯데 시대가 열린다.

신 명예회장은 1948년 주식회사 롯데를 설립한다. 롯데는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제품을 만들고 싶다는 의미를 담아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여주인공 이름인 ‘샤롯데’의 애칭인 ‘롯데’에서 따왔다.

이후 신격호가 확장한 사업이 성공궤도에 오르면서 1959년 롯데상사, 1961년 롯데부동산, 1967년 롯데아도, 1968년 롯데물산 등 유통분야로 사업영역을 넓혀간다.

이후 1968년부터 1980년까지 롯데그룹의 식품역량을 키우는 데 속력을 낸다.



젊은 시절의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롯데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1967년 롯데제과를 설립한 뒤 롯데칠성음료, 롯데삼강, 롯데리아 등을 잇달아 출범시켰다.

뿐만 아니라 1973년 호텔롯데·롯데전자·롯데기공, 1974년 롯데산업·롯데상사·롯데칠성음료, 1975년 롯데디자인츠, 1978년 롯데삼강, 롯데건설, 롯데햄, 롯데우유, 1979년 롯데쇼핑, 1980년 한국후지필름, 1982년 롯데캐논·대흥기획 등까지 설립하며 유통을 넘어 문화관광으로까지 사업영역을 넓혀 나간다. 이 시기에 롯데그룹이 한국의 ‘문화’를 새롭게 세우는 데 기여했다는 평이 나오는 이유다.

롯데그룹은 특히 1997년부터 2008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성장해 글로벌 기업으로서 위상을 갖추게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시기에 롯데그룹은 동남아와 중국, 미국 등으로 영토를 넓히는 데도 속도를 냈다. 2006년 롯데쇼핑이 한국과 영국에서 동시에 상장하기도 했다.

◆혁신, 현장 강조한 신격호 명예회장... 안전지향적 경영사고

“망하더라도 제일 늦게 망해야 한다.”

롯데는 신격호 명예회장이 자수성가로 이뤄낸 기업이다. 신철호 전 롯데 사장, 신춘호 농심그룹 회장 등 형제들과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데에는 신 명예회장이 매번 강조한 혁신 경영을 비결로 꼽는다.

신 명예회장은 안전지향적 경영을 최우선시하면서도,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두지휘했다. 당시 ‘외유내강 경영인’으로 알려진 이유이기도 하다.

신 명예회장이 ‘짚물경영’, ‘현찰경영’으로 유명한 만큼, 확신하는 분야에는 과감히 투자하고 아이디어를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반면 모르는 사업에는 아예 관심조차 주지 않았다. 신 명예회장의 이같은 선택과 집중 경영이 국내 식품, 유통 사업을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었던 배경이다.

◆신격호의 숙원사업 ‘롯데타워’

“서울에 세계 최고 높이의 제2롯데월드를 짓는 것이 여생의 꿈이다.”

신격호 명예회장은 서울 잠실에 롯데월드타워 완공을 평생의 숙원사업으로 삼았다.

롯데월드 개관 직후인 1990년대 초반부터 제2롯데월드를 구상, 잠실 일대에 글로벌 관광 복합단지 조성을 목표로 했다.

롯데월드타워는 전세계 최고층 순위 5위로, 8만6000㎡ 부지에 약 4조2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1987년 사업지 선정 후 2010년 11월 착공해 연 인원 500만명 이상이 투입돼 준공까지 만 6년 3개월, 2280일이 걸렸다.

롯데월드타워가 30여 년이란 오랜 기간에 걸쳐 완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안전성, 항공 운항 영향 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 신격호 명예회장이 지반 안정성과 활주로 각도 변경 등을 관련 부처와 완만히 합의하면서 사업을 진행시켰다.

우여곡절 끝에 완성된 롯데월드타워는 지하 6층, 지상 123층에 555m에 달하는 빌딩이다. 타워 무게는 75만톤에 달한다. 총 연면적인 8만6000㎡ 부지는 축구 경기장 115개를 합친 크기다.

현재 롯데월드타워는 롯데그룹의 한국 본사로 사용되고 있다. 오피스 공간에는 롯데지주, 롯데캐미칼, 롯데쇼핑 등 계열사들이 입주해 있다.

롯데 에비뉴엘에는 롯데마트, 하이마트, 시네마 사업장이 입주해 있고 호텔롯데와 호텔(시그니엘)에는 면세점이 쇼핑물에는 공실 없이 270여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2019년을 기준으로 방문자수는 50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세계적인 명소가 됐다.

◆‘신격호 정신’ 뒤따라

“나에겐 늘 극복해야 할 일들이 있다. 돈을 버는 것만이 내가 추구하는 전부가 아니고 극복할 일들이 있다는 것에 묘한 쾌감을 느낀다.”

신격호 명예회장은 한국 경제 발전과 함께 한 기업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일에도 적극적이었다.

지난해 말 신격호 명예회장의 기업가 정신을 연구한 결과가 일본에서 발표돼 이목이 쏠렸다.

현장에서는 제일교포 사업가로 일본에서 사업을 먼저 일군 후 다시 고국인 한국에 재투자해 이를 제조·유통·화학 분야까지 넓은 과정에서 신 회장이 한계에 부딪혔

을 때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 했던 행동 원칙을 높게 평가했다.

또 국가, 조직, 산업 분야 등에서 ‘스스로 경계를 설정하지 않고 펼쳤던 혁신적 사고’가 신 회장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결론 내렸다.

롯데그룹은 정신적 지주인 신격호 명예회장의 철학과 신념을 계승하는데 뜻을 함께 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공익사업을 위해 롯데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롯데재단에는 장학재단·삼동복지재단·복지재단이 있다. 해당 재단은 1983년 신격호 명예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설립된 재단이다.

해당 재단에서는 소외계층, 장애인, 청년기업가 등을 지원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 롯데장학재단은 ‘제1회 샤롯데문학상’을 개최했다.

‘제1회 신격호 샤롯데문학상’은 롯데그룹 창립자인 신격호 명예회장의 한국문화와 문화에 대한 열정을 재조명하고, 그의 문학정신을 계승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샤롯데’에서 영감을 받아 그룹명 ‘롯데’를 세운 신격호 회장의 이름을 샤롯데문학상에 담아 뜻깊은 한 소설가의 꿈을 기리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격호 명예회장의 고향인 울산에서의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지난달 초 롯데캐미칼, 정밀화학, 이네오스화학, 백화점, 마트, 호텔, 시티호텔, 자이언츠, 건설, 컬처웍스 등 롯데그룹 14개 계열사를 대표하는 임직원 30명은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현장중심경영... 사업내실 집중 롯데그룹, 글로벌 기업 자리매김 “망하더라도 제일 늦게 망해야”

뿐만 아니라 울산 지역 소외계층과 청년들의 안정적인 학업 활동을 돕고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 ‘신격호 롯데 울산 장학금’ 전달식도 매년 진행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중고교생 50명과 울산 예체능 학생 30명에게 총 8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울산 지역별로 8000만원씩, 총 4억원을 지원하는 맞춤형 물품지원사업으로, 기존 지원했던 지역인 울산 울주군, 중구, 남구에 이어 북구, 동구 지역을 추가해 사회공헌 활동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기증식 행사에 참여한 울산 지역 구·군 지자체장과 만남을 통해 물품지원에 관한 자문을 구하고 이후 지원사업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롯데그룹의 지주회사는 롯데지주(주)다. 롯데그룹은 2019년 9월 말 기준으로 국내에 총 93개의 계열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중 상장사는 10개사, 비상장사는 83개사다.

신격호 명예회장이 롯데그룹을 설립한 1967년부터 약 57년이 지났음에도 둘째 아들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여전히 신격호 명예회장의 경영 철학을 이어오고 있다. 여기에 신동빈 회장의 장남인 신유열 전무가 최근 경영선에 뛰어든 가운데 3대가 신격호 명예회장의 경영철학을 이어갈 것으로 전해지면서, 공동체와 함께 하겠다는 ‘신격호 정신’이 빛을 내고 있다.